

# 학교의 옥외환경 최적의 교육 장소로 만들자

## Outdoor Space of Schools for Comfortable Places

정진해\*

Jeong, Jin-Hae

### 1. 들어가며

학교의 옥외 환경은 그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성품과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의 옥외 환경은 쾌적해야 하며, 교육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 옥외 환경은 이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예컨대 운동장의 경우 전체 학생들의 집합 장소로의 역할을 중시한 네모 반듯한 넓은 공간에 한두 개의 운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교사 앞쪽으로 향나무 몇 그루가 심겨져 있는 화단이 전부다. 이러한 학교 옥외 환경은 특정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체육 시간을 제외한 어떤 교과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활용성이 떨어지는 옥외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10여 년 전부터 일부 시민단체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학교의 운동장은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고, 학교의 옥외환경은 교육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하며, 제대로 된 학교가 되려면 무엇보다 학교 숲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학교 형태는 반드시 사각형이고, 옥외환경은 축구를 비롯한 운동을 하는 공간으로만 존재하고, 학교에는 기념 될 만한 나무 한두 그루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고정 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199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교 옥외환경을 이러한 취지로 개선하였다. 물론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

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그만큼 지원하는 곳도 많아 재정적인 어려움은 덜 수 있었다. 이 원고는 10여 년간 학교 옥외환경을 교육적으로 개선해 온 우리 학교의 실정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새롭게 학교 옥외환경을 개선하려는 학교에 조금이나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의식을 바꾸는 일부터

학교의 모든 공간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유물이기에 새롭게 개선하는 옥외환경은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한다. 더욱이 학교 교육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교사들이 학교 옥외환경에 관심을 갖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교 옥외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은 보다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단순히 학교에 숲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숲을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교사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우리 학교가 처음 숲을 만든다고 할 때도 학생들이 공을 차고 뛰어노는 운동장을 숲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반감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다. 물론 교장이 한다고 하니 적극 나서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별로 탐탁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교사가 적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로 일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이들은 설득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 다행히 우리 학교에는 녹색수업연구회라는 당시 교육부로부터 우수 교과 서클로 뽑힌 교사 모임이 있었다. 이들 회원들은 학교 내외의 여러 가지 환경을 교과와 연계하여 수업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던 교사

\* 서울여대부설 화랑초등학교 교장, 한국사립초등학교장회 회장

들이었기에 누구보다 학교 숲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으로 교직원들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까지 학교 옥외 환경의 중요성이 확산되어 교직원은 88%, 학생들은 95%, 학부모들은 86%라는 비교적 압도적인 찬성으로 학교숲 조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 3. 하나하나 차근차근

학교 숲을 만들기로 결정한 초기에 전문 교수를 초빙하여 교직원 연수회를 가졌다. 학교 숲을 만드는 목적과 필요성, 외국의 사례들을 직접 들음으로써 교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교직원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수시로 가져 허심탄회한 논의 과정을 가졌고 이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학교 숲 운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종의 자문기구라 할 수 있는 ‘학교 숲 가꾸기 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두었다. 학교 숲 가꾸기 운영위원회는 학교 숲 운동의 전체 운영과정을 논의하고, 일정을 결정하며, 재원조달방법과 홍보방법 등 학교 숲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위원 중에는 대학교수나 지방자치단체의 간부 등을 포함함으로써 행·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원의 경우 학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희망하는 교사들을 우선 배려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체 위원수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학부모 위원은 당시 학교운영위원장, 육성회장, 어머니회장 등을 당연직으로 하였으며, 특별히 학생대표 3명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였다.

우리 학교는 불암산 끝자락에 위치하였고 태릉과 인접해 있어 학교 운동장 가장자리까지 숲이 이어져 있다. 주변의 경치를 보면 누구든 이곳이 예전에는 소나무 숲이었을 것으로 예상할 정도다. 이런 곳에 웬 학교 숲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학교의 숲 가꾸기는 수십 년 전에 학교를 개교하느라 훼손하였던 숲을 일부나마 원래의 숲으로 복원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왕 운동장을 줄이고 숲을 만들려면 이곳 지형과 토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숲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위원들이 그 일에 공감하였다. 우선 전문가에게 기본설계를 의뢰하였다. 설계업자는 학교의 지형을 둘러보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 달 이상의 작업 끝

에 설계도를 완성해 왔다. 그러나 일부 설계 내용이 학교의 의견과 달라 수정을 요구하였고 업자는 기본 틀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여 설계를 마무리하였다.

우리 학교 운동장 가장자리는 콘크리트로 스탠드를 만들어 숲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숲 가꾸기에서 제일 먼저 한 공사는 자연을 단절시킨 듯한 느낌이 들었던 이 스탠드를 철거하는 일이었다. 어찌 보면 운동장가로 스탠드를 만들어 학생들이 앉아 쉬거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나마 있던 스탠드를 철거한다고 하니 일부에서는 반응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숲이 만들어져 나타나게 될 가치는 그것보다 몇 배가 크기에 설득 또한 어렵지 않았다. 아울러 학교 울타리 역할을 하던 철재로 된 높은 웬스도 철거하였다. 스탠드와 웬스만을 철거했는데도 운동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막혔던 담이 열린 것처럼 시원하였고 멀리 보였던 숲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요즘 많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와의 단절의 상징이었던 콘크리트 담을 허물고 그곳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드는 일은 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무들이 어느 정도 자라 숲을 이루게 되고 자연스럽게 방음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숲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간접적인 도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몇 십 년 동안 다져졌던 운동장에 나무를 심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기에 우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언덕을 만들었다. 흙은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받기로 하였다. 되도록 유기질이 많은 흙을 덤프트럭으로 100여 대를 받아 설계도면에 있는 대로 언덕을 만들었다. 이때 가장 중시한 것은 기존 숲을 운동장으로 연장시키는 것과 운동장가에 조성하게 될 연못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는 것이었다. 이미 설계는 나와 있었지만, 수차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가장 이상적인 언덕을 만들었다. 언덕을 만들고 나니 어느 정도의 숲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건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산책로를 만들고 바닥에는 벽돌을 깔았다. 맨땅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비가 올 때를 감안하여 벽돌을 깔되 대신 흙이 많이 섞인 벽돌로 하였다. 이제 제일 중요한 순서인 나무 심기가 남았다. 나무는 이미 선정되어 산림조합에 주문된 상태였다. 주요 수종은 교사 전면인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 낙엽수로 하였다. 기존의 학교 전면에는 대부분 향나무나 소나무 같은 침엽수를 심었지만, 이것은 계절을 감안하지

많은 수종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실은 여름에는 해가 들어오지 않아 시원하고 겨울에는 해가 교실로 들어와 따뜻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 전면에 심는 나무는 여름에는 잎을 많이 달아 해를 막고 겨울에는 잎을 다 떨어뜨려 해가 들어오게 하는 느티나무나 뽕나무 같은 활엽수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곳곳에 커다란 나무를 배정하고 흙으로 언덕을 만든 곳에는 각 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수종과 흔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종으로 선정하였다. 커다란 나무를 심을 때는 크레인을 동원하였고, 가정통신을 통해 40여 명의 숲 가꾸기 학부모회원을 모집하여, 청소년단체인 녹색소년단 단원 및 교직원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다. 흙먼지가 날리던 운동장에 크고 작은 나무들이 심겨지자 학교 숲은 수십 년 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서서히 새로운 자연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에게 있어 학교 안에 물고기가 노닐고 잠자리가 수영하는 연못이 있다는 것은 자못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막상 연못을 만드는 일은 그 좋은 점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솔직히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형태의 사고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학교장으로서 사고 위험이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연못을 만드는 일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안전 사고는 지도와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자연 및 생태 교육에 필수적인 연못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기를 들 만한 명분이 없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기대 속에 연못 공사는 시작되었다. 100m<sup>2</sup>의 땅을 자연스런 모양으로 파고 맨 아래에 각종 배수 및 펌프 시설을 하고 그 위에 두꺼운 비닐을 깔 다음 다시 50cm의 두께로 진흙을 쌓았다. 그리고 옆면은 지름 100cm의 마른 통나무를 일정하게 묶어 한 바퀴 돌린 다음 비닐로 중간까지 덮어씌웠다.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연못 바닥과 중간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 전혀 물이 새지 않을 것 같았다. 연못 주변에는 역새 등 초화류를 수천 그루 심었다. 맨땅에 연못 분위기를 내는 것이 너무 신기하였다. 한 달 정도의 공사 기간이 지나 연못이 완성되었고 수돗물이 탱크를 통해 연못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직원들이 신기하듯 연못을 떠날 줄 몰랐다. 학교 숲 가꾸기에서 그 어느 것보다 인기 있는 것이 연못이다. 지금도 학생들은 학교를 등교하면 제일 먼저 연못 주변에 가서 관찰하고 다시 하교할 때는 무한정 연못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처럼 되었다. 그만큼 연못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 4. 교육적인 장소로

연못을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학교의 숲이 만들어지고 나니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학교에 들어서면 마치 깊은 산 속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시골도 아닌 도시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이제부터는 이 숲을 보다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안내판이 설치된 여러 생태 공원과 국립공원을 숲 가꾸기 위원들과 다니면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 몇 가지 형태의 안내판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입구에는 전체의 숲을 알려주는 종합안내판을, 그리고 각 지역별, 활동별 안내판과 개별 수종 안내판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로 전문 서적과 인터넷 등을 통해 만들어 전문 업자에게 의뢰하였다. 안내판이 설치되면서 우리 학교의 숲은 모두에게 활용 가치가 높은 숲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학교 숲이 만들어지면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의 운동장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의 학교 운동장은 몇몇 고학년 남자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기껏해야 서너 명의 학생들이 나무 그늘에서 노는 것이 전부였다. 사실 모든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운동장이 시설의 미비로 공 하나만 할 수 있는 축구장으로만 쓰이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구기 운동을 좋아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그 대안이 생태 숲이기에 학교 숲 가꾸기는 꼭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 학교 숲이 만들어지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숲에 나와 놀기 시작했다. 물론 큰 운동장에는 여전히 공을 차는 학생들이 있지만, 숲에는 기존에 운동장을 차지하지 못했던 저학년 학생들과 구기운동을 좋아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곳저곳에서 놀기 시작했다.

연못 주위에서 생물을 관찰하는 학생들, 숲 관찰로 따라 노는 아이들, 나무 그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 숲 속에 들어가 뛰어다니는 아이들, 나뭇잎이나 꽃을 관찰하는 아이들, 그야말로 숲은 학생들로 가득하였다. 처음 만 들었으니 신기해서 그런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학생들의 놀이 형태는 다양해졌고, 인원은 줄어들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부득이 나무를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점심시간을 이원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고학년들은 3교시 끝나고 점심을 먹고 저학년들은 4시간 끝나



사진 1. 화랑초등학교 학교숲 전경

고 점심을 먹도록 하여 숲 이용을 분산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누가 뭐래도 학교 숲은 학생들의 최고의 놀이터였다. 이 때문에 운동장에 숲을 만들면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말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오히려 교육적으로 따지면 더 많은 학생들이 뛰어놀고 피약별이 아닌 나무 그늘에서 즐겁게 놀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으니 훨씬 낫다는 생각이다. 아무튼, 우리 학교의 숲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또한, 보건 교사와 많은 선생님들이 전보다 폭력을 쓰거나 싸우는 학생들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숲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하루에도 수명씩 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가족 단위로 숲에 와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우리 학교의 숲은 화랑 식구만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숲으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숲 가꾸기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긍지는 정말 컸다. 콘크리트로 갇힌 도심 속의 학생들에게 숲을 거닐고 뛰놀 수 있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 숨 쉬고 뛰어놀고 그 속에서 공부함으로 자연을 닮아서 순수하고 맑은 심성을 길러 가는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대견스러울 뿐이다. 욕심

같아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학생들도 이곳에 와서 숲을 이용한 여러 가지 학습을 하고 있다.

숲에서 나무와 풀, 물고기 등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숲 속을 따라 뛰어다니고 떠들며 좋아하는 아이들, 숲에서 살아있는 내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들을 교실에서 내려다보는 기쁨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본교에 학교 숲이 만들어진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본교를 찾는 손님들이 참 많아졌다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 숲 운동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물론 영남, 호남 등 지방에서도 학교의 숲을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신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국,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도 관계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과 후와 주말에는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 인근 교회 교인들이 학교 안에서 가족과 쉬거나 놀이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더욱이 신문과 방송 등 각종 매스컴에서도 학교의 모습이 자주 방영되거나 보도되어 재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까지도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대단하다.

둘째, 선생님들의 학습 방법이나, 학생들의 놀이 형태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학교 숲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체육을 제외하고는 야외수업을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숲이 만들어진 이후 야외에서는 하루에도 몇 반씩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전에는 축구 잘하는 남자 학생 몇 명이 운동장을 독차지하였지만, 지금은 그동안 운동장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저학년과 여자 학생들이 다양한 모습으로(연못의 생물을 관찰한다든지, 산책로를 걷는다든지, 나무계단에서 가위바위 보를 한다든지, 숲 속에서 숨바꼭질을 한다든지, 잠자리나 나비를 쫓는다든지 등) 야외에서 노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셋째,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숲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학교 숲이 만들어지고 새로 지은 건물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멋진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 학생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고 특히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고 있음을 화랑예술잔치 각종 작품(그리기, 글짓기, 시화 등)에 나타난 빈도나 내용, 그리고 평소의 언어생활, 또한 학교 홈페이지 등에 쓴 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 5. 학교숲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예전에 비해 지금은 학교 숲을 만드는 일이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숲을 만드는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학교 구성원들이 있으므로 그들을 잘 설득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다. 아울러 학교에 식재할 나무를 선정할 때는 토질이나 건물배치 등 기존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특히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구하기를 권한다. 잘못 식재된 나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손실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무가 아닌 씨를 뿌리는 것

도 교육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싶다. 그리고 재원 마련이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기업 등에 지원을 요청하면 의외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 밖에도 기존 학교 숲 가꾸기 우수 학교를 견학하여 정보를 얻는 일이나 담당 교사 자신이 관련된 책을 많거나 연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 옥외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단순히 녹지를 넓혀 푸른 학교를 만드는 일에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교 옥외환경은 바른 성품과 인격을 갖춘 청소년들이 길러지는 매우 중요한 교육 시설이기 때문이다.